

# 파니움 - 제16번

## 종말의 때

Jeff Pippenger

2026-02-19

다니엘서 11장은 성경 예언의 제6 왕국의 최종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장에서 환상이 시작된 '고레스 제삼년'이라는 진술은 11장 1절의 'also'라는 단어로 보완된다.

또한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그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일어섰느니라. 다니엘 11:1.

가브리엘은 제11장의 서술을 시작하면서 세심히 다리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를 고레스와 결부시킨다. 제10장은 단일한 환상으로 제12장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며, 그것은 고레스 왕 제3년에 시작된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된 것이나 정한 때는 오래였더라.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달았고 그 이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다리오와 고레스는 함께 메대와 바사의 이중 민족의 상징을 이룬다. 이는 미국의 공화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이중 권세를 상징하며, 따라서 끝의 때의 이중 상징을 이룬다. 아론과 모세의 탄생은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의 400년 예언의 끝의 때를 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끝의 때의 두 이정표를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항상 시작으로써 끝을 예증하신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바벨론에서의 칠십 년간의 포로 생활이 종결된 때, 곧 '끝의 때'로 지칭되는 이정표를 함께 표상한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랜 기간의 가차 없는 박해 동안, 유배 기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Prophets and Kings, 714.

다리오와 고레스는 1798년과 1799년을 예표하며, 이 두 해는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벨론에서 겪은 대응적 포로가 종결된 끝의 때를 가리킨다. 1798년은 로마의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의 정치적 체제의 종말을 가리켰다.

그가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려가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짐승은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7:3.

1798년에 나폴레옹이 그 짐승의 생명을 끝냈고, 1799년에는 그 짐승을 탔던 여인이 유배 중에 죽었다. 1989년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아버지)가 모두 대통령이었으니, 이는 1989년에 끝의 때가 도래했음을 표징한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레이건과 조지 부시(아버지)를 대표한다.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할 것이며, 그의 부요함으로 얻은 힘으로 그는 모든 자들을 격동하여 헬라의 나라를 대적하게 하리라. 다니엘 11:2.

## 각성

다리오는 레이건이었고, 고레스는 부시 대(大)였다. 고레스를 뒤이은 세 사람은 클린턴, 부시 소(小), 분열자 오바마였으며, 네 번째이자 "훨씬 더 부유한" 대통령으로서 헬라의 세계화주의자들을 각성시킨 이는 트럼프였다. "stir"라는 단어는 "각성시키다"를 뜻한다. 2015년에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했을 때, 요엘이 "이방인들"이라 지칭하는 세계화주의자들이 각성되었다.

열국은 깨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모든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낮을 대라,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오라, 내려오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무리요, 무리요, 결단의 골짜기에 있도다. 여호와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서 가깝도다. 요엘 3:12-14.

"이방인"이 깨어날 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하며, 그 골짜기는 또한 "결단의 골짜기"라 불린다. 2015년 이후로 지구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내세운 각 변명에 맞추어 마련된 여러 묶음들로 옮겨 가기 시작할 것이다. 9/11에 산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2015년에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9/11에 늦은 비의 첫 단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 늦은 비가 곡식을 결실케 하는 바, 익은 추수를 산출하는 그 비가 시작된 지 14년째 되는 해인 2015년에, 요엘서는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레시아의 영역을 격동시킬" 때, 혹은 요엘이 말하듯이 트럼프가 "2015년에 이방인을 깨울" 때, 지구의 추수가 익어 가기 시작한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맨 먼저 언급되는 진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예언적 역할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서에서 대표되는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은 바벨론이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예언적 모형을 확립하도록 영감에 쓰임받지 않았다면, 다니엘서의 바벨론 이야기는 어땠겠는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은 그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의 증언 없이는 불완전하다. 최초 언급의 법칙은, 다니엘이 삼 주 동안 금식한 뒤 이십이일째 되는 날 받은 그 이상에서, 트럼프가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상징임을 정립한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동안 나를 대적하여 막았으나, 보라,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나니,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3, 14.

제11장의 환상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보여 주며, 트럼프가 미합중국의 지도자요 이어서 국제연합의 지도자라는 사실은, 그 사실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영원한 결과가 연결된 진리이다. 그 진리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해야 할 만큼 지극히 중요하였으므로, 14절에서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준 빛에 따라 그 환상을 확립하는 자들이 "네 백성의 약탈자들"임을 기록한다. 로마를 청사진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발자취를

식별하며 그의 행보를 올바르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요법령의 시기 동안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트럼프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짐승을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짐승의 형상일 뿐 아니라 짐승을 공경하기 위한 형상이기도 하다. 계시록 17장에서 교황권은 여덟째, 곧 일곱 중에 속한 자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1989년 끝의 때에 레이건을 기점으로 계산할 때 여덟 번째 대통령이지만 또한 여섯째이기도 하니, 이는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임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요한은 광야로 이끌려가 그곳에서 짐승을 탄 음녀를 본다. 그 음녀는 모든 주요 개신교 교단에 의해 가톨릭 교회로 규정되어 왔으나, 말세에 이르러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근본 신조를 부인한다. 요한이 그녀를 보았을 때 로마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고, 그녀는 '음녀들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요한이 1798년으로 옮겨졌음을 가리킨다. 그 시점에서 교황권은 순교의 피를 지니고 있었고, 일부 옛 개신교 교회들은 이미 로마 가톨릭과의 친교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 관점에서 요한은 '일곱 왕'을 보았는데, 그중 다섯은 1798년에 이미 몰락하였고, 하나의 왕국이 1798년에 존재했으니 그 왕국은 미합중국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왕국, 곧 열 왕으로 이루어진 왕국이 그 후에 올 것이었다. 이는 요한이 서 있던 1798년에는 일곱째 왕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열 왕은 일요일 법령 위기의 한 시간 동안 통치하며,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던 다섯째 왕국의 짐승에게 자기들의 일곱째 왕국을 주기로 합의한다.

'8'이라는 수는 부활을 상징하며, 가까운 장래에 임할 일요법령 때 일어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 가운데 그 치명적 상처가 치유될 때, 교황권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2020년에 세계화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서 선거를 탈취하였고, 그는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땅의 짐승의 두 뿔을 상징하며, 그 둘은 2020년에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트럼프는 1989년 종말의 때에 레이건 이후 여섯째 대통령이지만, 2024년 현재 그는 또한 이전의 일곱 왕에 속한 여덟째이기도 하다. 2024년에 그의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 환상을 정립하는 예언적 상징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운데 그는 동시에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되었다. 로마가 없으면, 로마의 형상의 움직임 추적할 능력도 없다.

## MAGA

네로의 '250'년이 종결될 때 트럼프가 어떻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인지, 혹은 기원전 207년에 그가 어떻게 안티오코스 대왕인지,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전제에 기초한 그의 전체 황금시대 운동의 맥락에서 그가 어떻게 마지막 대통령인지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장이 먼저 트럼프와 그의 예언적 역할을 언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1·제13·제22 문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진리'의 표장은 레이건을 첫째 문자로, 그리고 오바마를 2013년으로 표상되는 반역의 열세째 문자로 식별한다. 2013년은 종교재판소의 전 수장 뒤를 최초의 예수회 교황이 이은 해이다. 종교재판소의 수장이 사임했으므로, 그의 종결점이 예수회 교황의 시작점과 일치한다. 오바마의 두 교황 사이의 그 연결은 2013년 3월 13일이었다. 오바마는 반역의 열세째 문자에 상응하고, 제22 문자는 트럼프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대통령의 재임을 두 차례로 제한한다. 그 가운데 임기가 연속적이지 않았던 두 차례 재임 대통령은 단 두 명뿐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비연속적 두 차례 재임 대통령들의 알파요, 트럼프는 그 오메가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제22대 대통령이었으며, 클리블랜드의 오메가인 트럼프는 알파의 표징인 '22'를 지닌다. 클리블랜드와 트럼프는 히브리 알파벳 제22자의 상징성을 내포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대표한다. 비연속적으로 두 차례 집권한 대통령은 오직 두 명이며, 트럼프는 그 둘 중 둘째이다. 오메가의 2와 알파의 22를 곱하면 44가 되는데, 이는 1844년의 상징이며, 그것은 1844년의 달힌 문에 의해 예표된 바와 같이 일요일 법령에서의 달힌 문의 상징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역임한 구별되는 인물로는 44번째이며, 그는 일요일 법령에서 문이 달힐 때 대통령으로 있다.

트럼프는 고레스 대왕으로 예표되어 왔다. 고레스 대왕은 첫째 칙령을 반포하였고 아닥사스다 대왕은 셋째 칙령을 반포하였다. 첫째와 셋째는 서로 상응한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시작으로써 끝을 예시하시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대표하는 네로의 "250"년의 종결 지점에 트럼프가 있다. 기원전 457년으로부터의 "250"년이 끝날 때, 트럼프는 안티오코스 대왕으로 예표되며, 그는 2024년에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왔고, 이는 13절의 성취이다.

이는 북방의 왕이 돌아올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며, 여러 해 후에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13.

일요일 법령의 시기에 미합중국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면, 그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로마에 굴복하도록 강제된다.

“이방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설지라도, 동일한 위기가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의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증언보감』 제6권, 395.

“이방 열국들”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유엔의 지도권을 장악하는 미국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다. 유엔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이며, 이들은 이세벨과 결혼한 이스라엘 북방 열 지파의 왕 아합의 지배를 받는다.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완결되는 혼인이다. 일요일 법령에서 다니엘 11장의 영화로운 땅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한다.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산림의 제사장들이 엘리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미국은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때부터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이며, 아합은 이세벨과 처음으로 음행을 범한 자가 다스리는, 열 왕으로 구성된 왕국을 대표한다. 이세벨은 모든 왕국과 음행하고자 하나, 아합은 그 일을 맨 먼저 행한 자를 대표하며,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즉시 이세벨의 최초의 정부가 되는 자는 미국이다. 다니엘 11장의 관점에서, 바로 그 일요일 법령에서 트럼프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의 큰 권세의 왕으로 일어난다.

한 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일어설 때에 그의 나라가 꺾여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뉘되, 그의 후손에게로도 아니요 그가 다스리던 그의 권세대로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 그 외의 다른

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다니엘 11장 3, 4절.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연합(UN)의 '능한 왕'으로 일어서는데, 그는 그 구절 안에서 그렇게 표상되며,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에 의해 예표된다. 그가 일어설 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합중국은 끝나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으로 이루어진 일곱째 왕국이 시작된다. 열 왕들은 그 자리에서 곧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여덟째 왕국, 곧 이전의 일곱 왕국들에 속한 교황권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시작한다. 그들의 합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뜻은 진리의 기록인 성경 전체에 걸쳐 구절에 구절을 더하여 제시되어 있다.

## 로마를 예표함

다니엘서 11장 5-9절은, 같은 장 31-40절에 제시된 교황권의 역사를 완전하게 예표하는 예언적 역사로 성취되었다. 5-9절의 역사적 전개는 31-40절의 역사적 전개와 병행한다. 두 전개 모두, 교황 로마를 대표하는 권세가 먼저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정 기간 통치하다가, 깨어진 조약으로 말미암아 남방의 왕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한 시기를 식별한다. 그 두 전개를 면밀히 연구하여 역사와 대조할수록, 그것들이 얼마나 심대하게 정확한지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 정확성은, 그 구절들 속의 구조를 얼마나 밀접하게 재현하는지와, 또한 그 구절들을 성취한 역사 자체를 얼마나 밀접하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다섯 절을 성취한 역사는 31-40절에 제시된 교황 로마의 역사와 병행하며 부합하고, 10-15절에서 안티오쿠스 대왕의 도입을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격분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소집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나아와 범람하듯 지나갈 것이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 그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격동할 것이다. 다니엘 11:10.

10절이 성취됨에 따라 안티오쿠스 대왕은 애굽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승전을 거두었고, 그곳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원정을 종결하였다. 그 역사는 같은 장 4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예표한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10절의 "반드시 이르러 넘쳐흐르며 통과하리라"는 표현은, 40절의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 넘쳐흐르며 건너가리라"와 히브리어로 동일하다. 두 절 모두 북방의 왕(10절의 안티오쿠스, 40절의 레이건)이 남방의 왕(10절의 프톨레마이오스, 40절의 소련)을 패배시키는 때를 지시한다. 두 공격은 모두 남방의 왕이 앞서 거둔 승리(5-9절의 프톨레마이오스, 40절의 나폴레옹)에 대한 보복이었다. 남방의 왕이 공격에 나선 동기는 파기된 조약 때문이었다(5-9절의 베레니케의 결혼, 그리고 1797년 나폴레옹과의 툴렌티노 조약 파기). 이 절들에 나타난 예언적 구조와 그 이후 역사 속 성취는 이사야 8:8과도 일치한다.

그가 유다를 지나며 창일하여 휩쓸고 넘어, 목에까지 이를 것이요, 그의 날개를 펴는 것이 네 땅의 너비에 가득하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이사야 8:8.

이사야가 산헤립의 군대가 '넘쳐 흘러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것은 다시금 10절과 40절에서와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다. 이사야는 북방 왕 산헤립이 유다의 남왕국을 정복하였던 때를 지목하지만, 그는 '목'까지밖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보존되었다. 이는 10절에서 안티오쿠스가 경계에까지 이르렀던 것과 같다. 산헤립의 동기는 히스기야가 앗수르와의 조약을 파기하였다는 데 있었는데, 이는 히스기야가 합의된 조공을 중단함으로써 드러났다. 조약의 파기는 세 개의 병행 절들에서의 특이점이다. 그것들은 각각 조약의 파기를 수반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와 나폴레옹의 경우에는 북방 왕이 조약을 깬다고 지목되었다. 그러나 산헤립의 경우에는 북방 왕이 히스기야가 할당된 조공을 거부하였다고 고발하였다.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그것들을 점령하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앗수르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범과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나에게서 물러가소서. 왕께서 내게 부과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매, 앗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서른 달란트를 부과하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집과 왕궁 보고에 있던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더라. 열왕기하 18:13-15

산헤립의 북방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던 길에 유다의 성읍 마흔여섯을 함락하였다. 이사야 8장 8절이 10절과 40절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큰 예언적 중요성을 지니며, 그래서 1989년에 소련의 남방 왕국이 붕괴한 사건에 대한 제3의 증거를 제공한다. 그 붕괴는 40절의 내용이 공백인 기간의 시작을 가리킨다. 1989년에 40절이 성취된 때로부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을 대표하는 41절에 이르기까지, 40절 안에는 공백의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1989년에 시작하여 일요일법에서 끝난다. 40절은 그 기간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40절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십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확립하기 위한 주된 "열쇠"는, 북왕국이 남왕국을 상대로 수행한 보복전쟁에서 거둔 승리에 대한 이사야의 증언이다.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겠다는 선행 약속의 이행을 중단한 히스기야의 반역이든, 안티오쿠스에 의한 베레니케의 배제 사건이든, 또는 나폴레옹의 툴렌티노 조약이든, 세 절 모두는 공격의 기저 동기를 깨진 조약으로 강조하는 역사들에 의해 성취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존 케리가 이끄는 국무부 하에서, 차관보 빅토리아 눌런드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색깔 혁명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하나의 논쟁에 대해 두 입장이 존재한다. 푸틴은 그것이 깨진 조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의 반대자들은 푸틴이 지목하는 그 조약은 푸틴이 주장하는 맥락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가 파기되었는지, 혹은 그 반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언적 기록은 전쟁의 동기로서 깨진 조약을 단지 기록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8장 8절은 북방의 왕이 목까지, 곧 머리에 이르기까지밖에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그 "열쇠"는 1989년에 몸체가 붕괴된 뒤에도 그대로 서 있던 머리로서 러시아를 지목한다. 8절의 예언적 중요성은 머리를 식별하게 하는 그 "열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대표하는 "목", 곧 수도의 식별이 이사야 8장의 동일한 환상에 속한 앞선 본문과의 연계 속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있다. 그

환상은 7장에서 시작되며, 7장 7-8절에서 머리는 한 왕, 혹은 그의 왕국 또는 그 왕국의 수도로 정의된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고, 그 46개 성읍은 산헤립의 군대에게 정복되었으나, 산헤립은 수도 예루살렘을 그대로 서 있게 남겨 두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기원전 701년에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목까지 올라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1989년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언을 남겼다. 안티오쿠스 대왕이 남방 왕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할 때, 그는 10절에서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렀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10절에서의 안티오쿠스의 승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뚜렷한 개별 전투가 결여된 안티오쿠스의 군사 원정의 종결을 표시할 뿐 아니라, 그가 이전에 상실되었던 지리적 영역을 재확립해 놓은 그의 과업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10절에서의 그의 정복은 여러 차례의 승리의 결말을 나타낸다. 그는 '변경지대'를 뜻하는 라피아에서 제4차 시리아 전쟁의 원정을 끝마쳤으며, 라피아는 이집트의 경계, 곧 '목'이었다. 기원전 219년부터 217년까지의 안티오쿠스의 원정은, 1989년의 소련 붕괴의 넘쳐흐르며 지나감에 '왕이 여러 나라들을 지나간' 1991년에까지 미친 것을 대표한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사야 8장 8절은 러시아가 산헤립의 전투에서는 '목'으로, 안티오쿠스의 전투에서는 '요새'로 나타나는 유형을 따라, 11절의 성취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라피아 전투에서 남방 왕으로 비정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용(남방 왕), 짐승(북방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북방 왕의 대리 권세)로 표상된 외적 역사와, 7장 7절의 '예순다섯 해' 예언으로 표상되는 예언의 내적 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예언적으로,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건의 의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적 증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하셨기 때문이다. 그 전날, 예루살렘 성벽 위에는 엘리야김과 셉나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1844년의 닫힌 문과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에서 드러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와 빌라델비아적 재림주의의 상징이었다.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점령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내니, 그가 윗못의 수로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니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이요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사관 요아, 곧 아삽의  
아들이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사야 36:1-3.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에게 전갈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 바로 그 왕국을 산헤립이 8장 8절에서 공격한다. 이사야가 악한 왕 아하스를 만났을 때, 그는 그를 "세탁자의 발 큰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곁"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곧 랍사게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던 바로 그 자리이다. 이사야는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표징이라고 가르쳤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 표징과 기적이니라. 이사야 8:18.

이사야가 "세탁하는 자의 발으로 가는 큰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곁에서" 사악한 왕 아하스를 만났을 때,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동반하였는데, 그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지금 나아가 세탁하는 자의 발 큰길에 있는 윗못 수로의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사야 7:3.

스알야습은 "윗 못 수도의 끝, 곧 세탁하는 자의 발 큰길"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돌아오는 남은 자를 식별하는 메시지임을 지적한다. 그 남은 자는 그에게로 돌아오고 십일조를 창고에 들임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하라는 부름을 받은 말라기서의 자들이다. 돌아오는 자들은 또한 예레미야에 의해 첫 번째 실망 이후에 돌아오는 자들로 대표된다. 7장에서는 "윗 못 수도의 끝, 곧 세탁하는 자의 발 큰길"에서 이사야가 남쪽의 악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이사야 36장에서는 엘리아김과 셉나와 기록관 요아가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응대하였고, 랍사게는 산헤립을 대표하였다.

"세탁자의 발으로 가는 큰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끝"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선포하였고, "세탁자의 발으로 가는 큰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끝"의 마지막 메시지는 세 사람이 선포하였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국의 왕에게, 둘째 메시지는 이방의 왕에게 주어졌다. 분기선은 담과 일요일 법령이다. 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일요일 법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담의 제거를 대표한다. 일요일 법령, 곧 그 담에서 세 가지 상징이 있다. 엘리아김은 빌라델비아를, 셉나는 라오디게아를, 기록관 요압은 사데를 상징한다.

일요일 준수법이 시행될 때, 다니엘 11장 41절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은 제칠일 안식일에 관한 빛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 41절에서 엎드러지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며, 엘리아김은 빌라델비아를 대표한다.

그 날에 내가 내 종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부르리라. 내가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로 그를 굳세게 하며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0-22.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곧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보라,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7-9.

셉나는 엘리아김으로 교체되며, 성벽 위의 셉나는 이른비나 늦은비의 기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기를 거부하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상징한다. 교회와 관련된 이른비는 이사야와 귀환한 남은 자들에 의해 표상되었고, 그 기별은 악한 왕 아하스로 표상된 배도한 교회를 향해 있었다. 성벽에서 나온 기별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하던 북방의 악한 왕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은 이른비와의 관계 속에서 늦은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을 받는 동안에는 이른비, 곧 전비가 뿌려지듯 내리지만, 일요일 법령 때에는 비가 한량 없이 부어진다. 아하스에게 주어진 기별은 내적 기별이었고, 산헤립에게 주어진 기별은 외적이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첫째 음성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며 내적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둘째 음성은 외적이며 셋째 기별이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내적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였고, 성벽 위에서는 외적 기별과 함께 세 영혼이 있다.

엘리아김은 십사만 사천이다. 셉나는 그때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받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주의이다. 기록관 요압은 엘리아김의 기호가 들어 올려질 때 그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성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다른 양떼를 대표한다.

이사야 8장 8절은 이사야 6-12장의 메시지를 다니엘 11장 10절 속으로 도입한다. 이로써 공격 후에도 그 왕국의 머리가 남아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투를 촉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약 파기라는 논거를 지목한다.

1989년 소련의 붕괴(40절)로부터 다음 절에 표상된 임박한 일요일법령에 이르기까지 37년의 예언적 역사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40절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5절은 40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이는 '줄 위에 줄'의 방법론을 적용할 때에만 볼 수 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1989년을 서술하는 세 구절에 수반되는 예언적 경고이다. 또한 이사야서 8장 8절의 역사적 성취는 엘리아김과 셉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묘사한다. 그대는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눈먼 자인가?

다니엘서 11장 41절은 16절을 성취한 역사에 의해 예표된 미국에서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이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그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며,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니, 그의 손으로 그 땅을 멸하리라. 다니엘 11:16.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가 엎드러질 것이나,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들이 있으니,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다. 다니엘 11:41.

다니엘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역사적 성취는 이교 로마의 역사이다. 다니엘 11장의 모든 예언적 구절은 이교 로마, 교황 로마, 혹은 현대 로마의 역사 가운데 하나를 예표한다. 모든 구절은 로마의 역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장차의 로마 역사를 예표한다. 모든 구절이 그러하다. 이교 로마에 의해 성취된 역사에 직접 언급하는 구절들은 교황 로마를 예표한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함께 현대 로마를 증거한다. 로마가 그 이상을 정립한다. 왜냐하면 이 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상은 로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반이 드러났을 때 그의 제자들이 믿도록 돕기 위하여 배반자가 있음을 밝히셨다.

"유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자비의 목적도 두고 계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만일 예수께서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하는 듯 침묵하고 계셨더라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께서 신적 예지를 가지지 못하셨고, 불의의 습격을 받아 배반당해 살의에 찬 폭도들의 손에 넘겨지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 년 전, 예수께서는 자기가 열둘을 택하였으나 그중 하나는 마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의 배반이 주께 완전히 알려져 있었음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이 그분의 비하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할 것이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참혹한 결말에 이를 때, 그들은 예수께서 배반자에게 선포하신 그 화를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55.

2023년 12월 31일,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계시의 인봉을 떼기 시작하셨고, 기초적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 시험은 로마가 여전히 14절에서 그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인지, 아니면 상황이 변하였는지를 가르는 것이었다. 2025년 5월 8일 미국에서 나온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14절이 성취되었다. 그때 트럼프와 교황 레오 사이의 관계가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이미 예표되어 있었음이 보였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색깔 혁명을 일으킨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교황의 재위 기간에 걸쳐 재임한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났다. 10절에서는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등장하고, 이어 2014년에 11절의 '경계지대의 전투', 곧 라피아 전투로 표상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라피아는 '경계지대'를 뜻하며, '우크라이나'라는 말도 동일한 뜻을 가진다. 그 역사에서 오바마와 두 교황은 10절부터 15절까지의 세 전투 중 두 번째 전투를 표징한다. 그런 다음 2024년에 13절의 성취로서 트럼프가 돌아왔다. 그리고 14절에서 트럼프의 교황적 대응자가 도착함으로써 그 이상이 확립된다.

확정된 사실은, 10절부터 15절까지의 세 전투가, 일요일 법령 시점의 갈멜산으로 이끄는 이세벨과 아합 사이의 관계를 각각 식별하는 세 개의 이정표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레이건 시대에는 이세벨이 비밀 동맹에 의해 숨겨진 채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런 다음 바알의 제사장들과 숲의 선지자들이,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와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 둘 다에 대한 오바마의 조현병적 상징성, 대지모 숭배, 프랑스 혁명의 방종과 무정부 상태와 결합된, 각성주의적 자유주의 가톨릭주의의 심령주의를 고양시켰다. 그 다음 2024년에 트럼프가 귀환하였고, 2025년에는 짐승과 그 우상 사이의 공개적 관계가 현시되었다. 지금은 2026년이고, 기초의 외적 비전 시험은 통과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성전의 비전 시험 가운데 있다.

11절은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성취되었으며, 2014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격화되었고 이제 결말에 임박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표한다. 푸틴이 승리하겠으나, 그 승리는 단지 그의 몰락의 서막을 열 뿐이다. 11장 11절의 예언적 구조와, 그 11절이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승리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은, 웃시야 왕의 예언적 역사와 상응한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웃시야는 모두 남방 왕들이었으며, 군사적 성공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나 그 교만이 두 사람 모두를 몰락하게 하였고, 두 사람의 몰락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각자의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15절의 파니움 전투로 이어지는 푸틴의 몰락을 계속하여 고찰할 것이다.